

企劃論文

‘入養’문제에 대한 神學的 一考

이 상 훈*

| | |
|------------------------------|-----------------------------|
| I. 들어가면서 | IV. ‘입양’의 Context로서의 현대(서)구 |
| II.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입양 어떻게 이루어졌나? | 사회 |
| III. 성서와 그 주변세계에서의 입양 습속(習俗) | V. 나가면서 |

I. 들어가면서

‘입양(入養)’ 문제를 접하는 한국인의 마음에는 여러 갈래의 곁이 자리한다.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불러왔던 ‘한국전쟁.’ 그리고 그 여파로 생겨난 많은 수의 ‘전쟁고아들.’ 하루 아침에 부모와 집을 잃어버리고 폐허의 잣더미 위에 울부짖는 아이들의 참담함. 그 소식은 당시 대다수 참전국의 국민들에게까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관심은 배려 그리고 돌봄의 인류애적 결단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을 자신의 가정에 입양하여 새식구로 맞이들이는 실천적 결연(結緣)으로 결실을 맺는다.

이후 한국 국적으로 태어난 많은 아이들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입양’의 반열에 오른다. 이쯤하여, ‘20만 해외입양아 시대.’ 어느덧 우리의 얼굴에는 ‘지구촌 최대의 고아수출국 이라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신학 전공

는 그리 반갑지 않은 타이틀로부터, ‘슬픔을 딛고 우뚝 선 인생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동포로 둔 또 다른 불리움이 존재한다. 돌아보고 싶지 않은, 어쩌면 치부(恥部) 짚으로 여겨졌던 ‘확대된 자아’의 경험, 입양(入養).

이제 한쪽 구석으로 밀쳐냈던 그 이름을 다시금 떠 올리면서 문득 성서의 한 구절을 생각한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지요. 우리 식구들 생명을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창 45:5, 현대어성경)” 형들의 질시를 받아 이집트로 팔려와서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어 오히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의 곤궁을 도와주는 요셉. 그는 감회에 젖어 이렇게 고백한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지요.” 형의 모략으로 죽음 직전에 넘겨졌던 과거를, 타향에서 객이 되어 고아로서 지낸 험난한 생활을, 그리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급기야 왕의 궁정에 (총제적 의미로) 입양되어 일국(一國)의 살림을 호령하는 대신(大臣)이 된 그 모든 일들을 그는 ‘신의 섭리로 돌린다. 그 ‘섭리로 돌리는 언설(言說)’, 이를 통해 우리는 입양의 문제가 단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 즉 종교적 지평에서 신적 섭리와 그 수행,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동적 인간 관계 등의 신학적 제(提)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II.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입양, 어떻게 이루어졌나?

현대사회에서 ‘입양’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자(膾炙)시킨 이들은 우리 한국인(韓國人)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유기(遺棄)된 아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처지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겨 팔을 걷어붙인 이들은 북미나 유럽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입양기관과 그 기관의 종사들이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물론 근래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입양에 관한 한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동족에 대한 입양에 대하여 소극적이다.¹⁾

1) 1997년 이후 현재까지의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일민족이라는 혈통적 정체성과 성리학(性理學)적 전통을 아직도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유독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애착이 강하다. 때문에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소위 자신과의 혈통적 종족적 유대감 밖의 범주에 속해있는 이들을 자신들의 호적에 입적시켜 가족의 일원으로 삼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낯설다. 한국의 전통 속에서 유난히 자신의 혈통을 계승하는, 그것도 딸이 아닌 아들을 고집하는 세태를 민속학자 주영하는 '부계혈통 중심의 종법체제 실천'에서 유래한다고 분석한다. 그는 "조선왕조가 지녔던 이념적 지향은 성리학에 기초한 부계혈통 중심의 종법체제 실천에 있었다. 18세기 이후 부계혈통 중심의 이념적 지향은 중심세력을 뛰어넘어 민간에게도 주된 실천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혼인을 한 부부는 당연히 아들 낳기를 기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해한다.²⁾

'기자(祈子),' 곧 '아들'을 낳아 이를 통해 자신의 혈통과 가통을 잇게 한다는 부계혈통 중심주의는 조선조 이래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이념적 뿌리였다. 가부장적 질서의 확고한 유지를 근간으로 충(忠)과 효(孝)를 가장 으뜸 되는 덕목으로 삼았던 성리학적 질서는 구한말(舊韓末), 서양의 세계관을 등에 업고 이 땅에 상륙한 외인(外人)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희안한 것'들로 비쳐졌다. 정연희가 소설의 형태로 전하는 외인열전(外人列傳)에서 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당대의 한국 사회를 회상한다. "조선의 여자는 오직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씨받이(種子)를 위하여 필요한 '밭'이상의 뜻을 매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 구운 소금으로 2백번, 3백번 배꼽을 지지는 것으로 자기의 육체를 확대하는 것쯤은

| 연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계 | 3,469 | 3,869 | 4,135 | 4,046 | 4,206 | 4,059 |
| 국내입양 | 1,412 | 1,426 | 1,726 | 1,686 | 1,770 | 1,694 |
| 국외입양 | 2,057 | 2,443 | 2,409 | 2,360 | 2,436 | 2,365 |

출처: 보건복지부가정아동복지과, 「국내외입양통계」(2004. 10. 4)(단위: 명)

- 2) 주영하는 자신의 민속조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그 근간이 되고 있는 종법체제의 실천은 가례(家禮)에 있으며, 그것의 핵심은 조상 만들기였다고 주장한다. 조상을 통해서 부계 혈통을 잇는다는 인식은 기자(祈子)를 위한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때 "죽은 조상은 기자 행위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 기자를 통한 부계혈통의 전승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사람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으로 혼인 후 출산 전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례로는 임신을 바라는 각종 속신(folk belief)과 금기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주영하, 「출산의례의 변용과 근대적 변환: 1940-1990」, 『한국문화연구』, 제7집(2003), 213~214 쪽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고 할까요, 아들 못 낳는 아내를 대신해 아들을 낳아주는 직업적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흔히들 세간에서 아들 낳기를 비는 습속에서 유래하던 행태와 소위 ‘씨받이’ 부인에 대한 인상을 적고 있는 것이다. “(씨받이의 습속)은 남편이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여 첩언기를 꺼린다거나 또 아내의 영향력이 유다른 경우 종사(宗嗣)의 아들을 얻기 위하여 ‘아들제조 기계를 사는 셈이지요.”³⁾

이상의 전통사회에서의 세태들이 근대 사회 속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는 전하고 있다.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들 선호’ 사상이 남아 있으며, 또한 자신의 혈통적 계승에 집착하는 제 현상이 잔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연구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편, 상기의 제 경향 속에서 ‘양자를 통한 가계의 상속 이라는 주제는 한국의 전통 사회 속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전통사회의 가계는 적처(嫡妻)에게서 태어난 친아들로서 장남인 경우 혈통으로 보나 종법에 따른 정통론적 입장에서 보나 적장자의 대표적 경우라 할 수 있었다. 이 적장자가 가계를 계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호주 생전에 적처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했거나,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이 장성해서 혼인을 하고 가계를 계승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일찍 죽었을 경우, 대안(代案)으로서 양자를 들이는 일이 시도되었다.

3) 정연희, 『이야기 선교사: 양화진』(홍성사, 1992), 237~238쪽. 정연희는 여기에서 외인들의 증언형태를 통해 당시의 기자(祈子) 습속을 소개한다. 이들 습속 중 일부는 여인들이 뜨겁게 볶은 소금을 배꼽에 담고 그 위에 숙짚질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옛날 의서인 의학강목(醫學綱目)에서 연유하는 소위 ‘아들 얻는 방법’이었던 바, 이 소금뜸질을 2 백번 이상 실시함으로 인해 여인들의 배꼽에 화상의 흉터를 남기곤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이를 낳는 일에 남편 쪽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씨내라 라 하여 아내에게 외간남자를 강제로 안겨주는 습속도 있었음을 소개한다.

4) 주영하는 기자(祈子)의 전통적 세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전주이씨 광평대군파의 중손에게 1980년 시집을 가서 딸 셋 만을 낳은 김명자씨 가명 등이 겪는 고초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근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아들을 바라는 신념은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듯하다. 특히 교육정도, 경제형편, 사회지위와 상관없이 도시에서의 아들 선호는 종교행위와 속신은 물론이고 근대의 산물인 의료정보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은 표면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을 뿐, 실질적인 삶의 틀과 관념을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주영하, 앞의 논문, 214쪽.

예컨대, 의성김씨(義城金氏 川前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양반의 생활 세계’를 분석하고 있는 문옥표 외의 연구자들은 “적사(嫡庶)의 구분은 조선조 중기부터 일부일처제가 확립되면서 처와 첩이 구분됨에 따라 생겨난 결과이다. 어쨌든 후대에 와서 청계파(혹은 조선시대의 양반: 필자주)는 반드시 정실에서 아들을 낳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형제나 다른 친족의 정실에서 난 적자 등에서 입양해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게 되었다”⁵⁾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때 “양자를 들이는 일은 종가가 아니더라도 형제나 당내 안에서 입양한 예가 많았고, 이렇게 서로 양자를 주고받으면서 대를 잇고 또 한 지역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므로, 생가(生家)와 양가(養家)를 구분이 없이 중시하면서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⁶⁾

이상의 입양의 습속은 그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존재한다고 상기 연구자들은 적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양자로 들인 자녀가 막상 가계의 승계를 이루기도 전에 또 사망한 경우도 있었으며, 호주가 생전에 적장자를 세우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 호주 사후에 양자를 들이는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의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같은 다양한 경우의 입양 세태들은 주로 조선조 성리학적 질서를 지켜야했던 양반가문이 어떻게 하면 대를 끊이지 않고 자신들의 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궁구(兢懼)했던 결과들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당시 “가계를 계승하는 일은 단순히 한 가문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넘어 그 가문의 생존의 문제”⁷⁾였기에 입양을 통한 가계의 계승은 멸문(滅門)을 피하면서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가장 적합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전통문화

5) 문옥표·박병호·김광익·은기수·이충구, 『조선 양반의 생활세계, 의성김씨 천전파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백산서당, 2004), 86쪽. “입양을 청할 때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계를 잇지 못한 불효를 스스로 반성한다는 뜻에서 입양자의 집에 가서 거적을 깔고 앉아 절을 하고 빌어서 얻어오는 형식을 취하며, 의성김씨의 경우 좋은 집안에서 입양하기 위해 그 대상을 엄격히 골랐으며 그래서 25촌, 35촌에서 양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한다

6) 위의 책, 87쪽. 문옥표 외 연구자들은 현대사회의 부부가족 혹은 직계가족 중심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생활상을 ‘가족전략(family strateg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상기 전통 사회 속에서의 가계 계승을 위해 적장자를 구하는 일이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동생, 조카까지 동원되었다는 점, 즉 이처럼 가족차원에서 가계계승을 위한 노력을 넘어선 가계 계승전략을 ‘종족전략(lineage strategy)’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명명한다

7) 위의 책, 135쪽.

속에서 ‘입양’ 전통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즉, ‘입양’이 대부분의 경우 비록 그 촌수(寸數)가 멀더라도 같은 동성과 동본을 근간으로 하는 혈족과 친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혈족과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입양’의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다. 즉, ‘입양’이 피입양(彼入養) 당사자의 안녕과 복지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기 보다 주로 입양을 행하고 있는 당사자, 혹은 그 당 가문의 지속적 승계(承繼)를 위한 전략(戰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의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이상의 전통사회의 가(家)의 승계를 위한 양자제도가 사후(死後)양자, 유언(遺言)양자, 호주상속을 위한 양자, 만아들의 입양금지, 양(養)호주의 과양(罷養) 금지 등의 형태로 유지되어오고 있다.⁸⁾ 그러면서도 이제 비록 그것이 혈통과 종족을 뛰어넘는 입양의 습속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는 최근 10년 사이에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쌍방(雙方)을 위한 입양 제도’, 즉 ‘어버이를 위한 또는 자녀를 위한’ 제도로서의 입양 개념에 대하여 그 이해의 범위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⁹⁾ 이같은 변화의 흐름은 주로 서구에서의 입양경험을 적극 수용하면서 생겨난 우리 사회의 습속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제 이같은 점에서 서구사회에서의 입양의 경험을 주로 성서와 그 주변 세계의 경험에서 찾아봄으로써 그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III. 성서와 그 주변세계에서의 입양 습속(習俗)

성서(聖書)를 낳은 헤브라이즘의 세계[유대·기독교(Judeo·Christian)전통]는 헬레니즘 전통과 더불어 서구문명을 구성하는 핵심의 자리에 놓인다. 한국을 포함하는 동양권에서 주로 혈족 중심의 입양 행태를 견지하는 세태와 비교해 볼 때, 혈연주의적 문턱을 넘어 소위 ‘타인(他人)’의 범주에 속하는 이들을 입양하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대 서구사회의 제 면모는 일면(一面) 성서와 그 가르침에

8) 이태영, 「양자」, 『동아세계대백과사전』, 284쪽

9) 각주 1)번의 통계자료 참조

영향을 받은 나뭇대로의 전통에 힘입은 바 크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의 문제를 다루는 성서의 기사(記事)에 관심을 갖는다. 성서는 과연 입양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을까? 성서에서 유래하는 입양 전통이 현대인들의 삶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성서와 그 주변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입양의 습속에는 어떤 연계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일까?

근동(近東) 연구가 박스(G. H. Box)는 고대 바빌로니아 전통을 기록하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과 1925년 이래 티그리스 동쪽 키르쿠크 부근의 누지에서 발견된 B.C. 15세기의 문서들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입양'에 대한 기록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이들 기록들은 셈족 등의 문명사회들에서 양자 입양이 입법화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¹⁰⁾ 박스에 의하면 함무라비 법전 185항 이하에서 "입양에 관한 기록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등장하는 사례는 부부가 자식을 갖지 못해 그들의 후속 세대가 없을 경우, 자신들이 형성한 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¹¹⁾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혼한 아내로부터 자녀가 없을 경우 아내의 목인 아래 그녀의 하인 등을 공공연하게 첩으로 맞아드리도록 허용되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양의 사례를 흔하게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보다 실제로 존재했던 입양의 기록은 결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모두 떠나가고 노년에 자신들을 돌보아줄 후손이 없을 경우에 이루어지곤 하였다고 분석한다. 이 때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를 성심껏 돌보아드린다는 전제하에 훗날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원래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질 재산을 제외한 몫을 상속으로 받기도 하였다"¹²⁾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입양에 대한 기록은 편의(便宜)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즉 도제의 관계에서 제자로 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접하게 된다. 이 경우 종종 자신의 노예들 중에서 입양의 대상이 정해지기도 하였는데, 일단 입양이 된 자들은 자유가 그 보상으로 주어졌다고 한다. 이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성서 이외의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사례는 주로 피입양인 중심의 입양

10) Box, G. H., "On Adoption," *Encyclopedia of Ethics and Religions*, pp. 114-115.

11) *Ibid.*, p. 115.

12) *Ibid.*

이 아닌, 입양인 중심의 습속들, 즉 경제적 이유, 특히 재산의 보호라든가 노동력의 획득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입양 주제의 동인(動因)으로서 성서의 가르침

같은 고대의 근동에 위치한 사회였지만 상기의 바빌로니아의 경우, 입양이 주로 ‘경제적’ 이권(利權)의 지속적인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세태와 비교할 때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담고 있는 성서에서는 입양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동기(動機)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특별한 의식(意識)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는 성서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ikos)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히 3:2-6).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구약성서의 언급에 주목한다(민수기 12:7 등).¹³⁾ 성서의 모세 오경 중 한 부분을 이루는 민수기(民數記)에는 고대 이집트의 학정 아래 시달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영도 아래 가나안으로의 대탈출을 시도하면서 특별한 선민(選民)의식이 태동했음을 전하고 있다. 즉, 모세를 최고 청지기로 하는 하나님의 집과 그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인들을 뜻하는 ‘운명공동체적’ 결속으로 이어지는 민족단위의 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여호와의 집’은 그들이 이집트, 곧 ‘중도였던 집’에 있었을 때 그들이 겪었던 곤경과 종종 대조된다.¹⁴⁾

출애굽의 전(全)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이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자의식을 갖게 된다. 이제 그 자의식은 자연스럽게 야훼에 대한 경외와 예배를 일상사로 삼는 공동체적 연대성의 유지로 확장된다.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제로 각기 자신의 가정에서 야훼에 대한 예배와 그의

13) Wright, Christopher J. H., *Living as the People of God*, 정옥배 역,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89), 237~238쪽.

14)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 가족, 유업으로서 이스라엘의 전 백성과 땅을 결합시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렘 12:7, 호 8:1; 9:15; 미 4:2)”라고 지적한다. 이 비유의 요점은 그들이 단순히 한 나라나 각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동질성, 즉 동등하게 하나님께 속한 집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다.

가르침을 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의식이 더욱 공고히 성장한다. 이 의식적 연대 아래에서 각 개인은 더불어 존재하는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깊은 소속감을 느끼며, 동시에 위기를 겪을 때 이 공동체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담보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자랄 수 있었다.¹⁵⁾ 이 때, '선택된 민족'이라는 공동체적 동일감은 곧 한 개인이 神(神)의 언약(言約)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경험은 이제 또 다른 '선택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였던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방인들-자연적으로 '잡'에 소속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의 근거로 이어지고 있다. 고대 이집트사회에서 '잃어버려졌으며, 피압박의 대명사'였던 '히브리인',¹⁶⁾ 그 종족들이 이제 신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집'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니 그 피택(被擄)의 감격으로 항시 그들이 전에 처해진 형편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써 과거의 자신들과 동일한 형편에 처해진 이들을 돌보는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식이 싹틔던 것이다.

이상의 구약에서 시작된 '선택된 백성'의 개념은 이후 성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로 부각된다. 신약성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양자'(롬 8:15), '양자 될 것'(롬 8:23), '양자 됨'(롬 9:4), '아들의 명분'(갈 4:5), '아들들이 되게'(엡 1:5) 등의 형태로 그 의미가 확산된다. (신약) 성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15) 모세오경의 한 부분인 신명기 32:1-43절에는 모세의 노래를 통한 '입양' 모티프가 등장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야훼를 아버지로 묘사한다. 즉 야훼는 자기 백성을 획득하거나 조성한 분이(6,15절), 자기 백성을 잉태하고 낳은 아버지라는 것이다(18절). 또한 야훼는 낳은 자기 백성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하는 양육자라는 것이다(14절).

16) 웨이퍼트(M. Weippert)에 의하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광범위한 원문들에서 발견되는 'apiru'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 이 용어는 전(全) 고대 근동 지방에 걸쳐서 흔했던 특정한 사회계층, 곧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때로는 정치적 망명자, 난민, 추방자 등등의 계층을 묘사한다.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바로 그 명칭 '히브리인'으로 불리웠다. 그 말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지칭된다. 하지만 "초기의 법전들을 보면 '히브리 종'이라는 용어는 거의 틀림없이 이스라엘인과의 관련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 즉 땅이 없는 사람들, 쫓겨난 가나안인들과 이주민들로서 땅을 가진 자들의 가정에 그들 자신과 그들의 노동력을 팔아넘겨 고용됨으로 생존한 사람들로 언급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율법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다른 집단들, 이를테면 과부와 고아들, 외국에서 온 이주민과 레위 족속들 등과 함께 '히브리 종'들을 보호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Weippert, M., *The Settlement of the Israelite Tribes in Palestine*, SBT: SCM, 1971.

일컬어 ‘아버지(성부)와 아들(성자)’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救贖)되어 그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정의한다.

성부(聖父)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의 신분이 본질적, 생래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 은총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신자(信者)들은 파생적이며 이차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 불리움을 받는다는 자각이 생긴다. 즉, 본래는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들들의 자격을 얻도록 ‘양자 삼아졌다’는 사실을 기꺼이 용인하게 된다. 이 때 ‘아들 혹은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하나님의 집에 입양되어졌다는 의식)이 비록 주로 영적(靈的)인 차원에서의 선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는 체험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은, 이제 그 경험을 통하여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적 차원에서의 ‘양자 삼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생긴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르른다. 즉 상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함으로 ‘과부와 고아’에게 선행을 베푸는 의식과 동일한 선상에서 ‘구속자(Redeemer)’로서 모든 사리(私利)를 버리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감사하는 증거로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이웃들에 대한 구체적 선행동기를 유발케 하는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성서 속에 이웃에 대해 관용을 베풀 것, 즉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행위로 표현되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소산물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윤리적 요청은 다른 한편 성서가 주장하는 독특한 ‘소유의 개념’에서 연유한다. 신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땀을 흘려 생산해낸 재화나 그 결과적 산물일지라도, 그것을 생산자 스스로가 배타적이거나 절대적인 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따를 것을 역설한다. ‘내가 그것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것이다’라는 가르침 등은 오직 모든 산물(產物)의 근본 원인자는 오직 한분 야훼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는 것이다(신 8:17-18).¹⁷⁾ 이같은 독특한 소유개념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 중 열의 하나를 야훼에게 드리는 ‘십일조(十一種)’ 행태의 근간이 되

고 있다. 이 때 드러진 재물(財物)은 성전 봉양에 종사했던 레위족에게 돌려지기도 했지만, 다시금 매 삼년마다 그 재물 중 일부를 사회적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 등에게 돌리는 '나눔 실천'의 윤리적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성서 속에 실례로 나타나는 입양 모티프

성서에서의 구체적 입양 사례에 대한 기록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지닌다. 첫 번째의 경우는 가문(家門) 내부에서의 입양 사례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가문 사이에서의 입양 사례이다.

가문 내에서의 입양사례는 첫째, 야곱이 그 손자들을 입양시킨 사례와 그 유형을 꼽을 수 있다. 할아버지 야곱은 말년에 자신의 침상에서 요셉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창 48:5).” 학자들은 이 경우가 입양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합법적인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아들 자격이 없는 상속권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이러한 입양 형태가 우가릿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입양 절차가 동반된 상속권의 선언으로 볼 수 있다.”¹⁸⁾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는, 창세기 50장 23 절에 나타난 요셉이 증손자들을 입양시킨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요셉은 마길의 아들들, 즉 자기 증손자들을 아들로 입양시킨다 이 사례에서는 주로 ‘상속 과 관련하여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상속과 관련된 입양의 경우 이미 살펴본 대로 당대의 근동에서 유행

17) 이같은 가르침은 단지 선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야훼는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과 들의 첫 열매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인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선제권이 있음을 확증하고 있다(출 13:2; 23: 19; 34: 19이하). 이에 덧붙여 십일조를 바치라는 요구가 있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지만 사실상 드리는 자가 예베에서 소비하는 것이며,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레위족들과 나누는 것이었다(신14: 22-27). 또한 매 삼년째에는 십일조를 모아 비축하여 가난한 자 일반-레위인, 객, 과부, 고아들-이 사용하도록 했다(신 14: 28, 이하; 26: 12 이하). 이처럼 삼년마다 드리는 십일조에 더해서 칠년마다 땅을 묵혀 휴경해야 했다. 이것 역시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출23: 11; 레5:

6). Wright, Christopher J. H. 앞의 책, 102-105쪽 참조.

18) 정중호, 「구약에 나타난 입양모티프에 관한 연구」, 『계명신학』, 제10집(1995), 61 쪽

하던 입양의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사례로는 소위 수혼(levirate marriage) 혹은 시형제 결혼이라고 불리우는 습속과 관련된 나오미와 오벳 그리고 보아스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수혼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형의 이름을 잇게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성경 룻기에는 ‘기업을 자로 나선 보아스가 나오미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 그에게서 자신을 낳아, 그 자녀를 나오미의 가문에 돌리는, 즉 ‘수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수혼’은 주로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의 경우, 망자의 아내를 친족 중에 유력자가 취해서 망자의 이름과 유업으로 아들을 키우도록 명하는, 소위 ‘근족(近族)’의 책임을 수행하는 습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은 레위기 25: 25에, 두 번째 규정은 신명기 25: 5 이하에 묘사되어 있다. 이 ‘수혼’ 제도의 경우,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소위 전술한 ‘가족전략’에 대비하여 ‘종족전략’으로 불리울 수 있는 집단으로서의 혈통 잇기에 대한 습속과 유사한 면모를 보여준다.

그런데, 룻기에 나타난 ‘수혼’의 집행과정은 단순한 ‘혈통잇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양상을 포함한다. 성서에서 예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농작물이나 포도원, 감람나무에서 베고 남은 것을 모으도록 허용하는 규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서 레위기 19: 9 이하와 신명기 24: 19-2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밀이나 보리를 거둘 때 농부들은(가난한 자들이) 남은 이삭을 주울만한 것이 있도록 지나치게 남김없이 곡식을 거두지 말라고 말한다. 룻이 이삭을 줍는 이야기와 보아스의 관대함이 상기의 규정과 어우러져 결국 ‘기업을 무를 자(go el)’로 보아스가 지목되기에 이르른다는 구조는 ‘수혼’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란 보다, 개인의 선택을 통한 소외된 자들, 특히 당대 남편의 소유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여인의 미래와 안전에 대한 보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원(伸冤)의 의미로서 수혼제도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세번째 사례로는 ‘양자(養子)’만의 입양이 아닌 ‘양녀(養女)’의 입양에 관한 기록으로서 에스더를 입양한 모르드개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저(모르드개)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에 1: 7)”의 기록은 자신의 질녀

를 자신의 딸로 입양하여 돌보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더라”는 표현은 아카디아어로서 입양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구절인 ‘ana maruti lequ=to take a status of sonship’과 매우 유사하다”¹⁹⁾ 이 경우에도 ‘상속의 경우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입양의 두 번째 형태인 가문 사이의 입양의 경우, 먼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첫째, 모세를 입양한 이집트 왕 바로의 공주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출애굽기 2: 10에 나타나는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동기에 대하여는 여타 이스라엘에서의 경우처럼 ‘소외된 자에 대한 윤리적 실천의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여 지지 않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모세는 그녀의 보호아래 왕궁에서 자라났다고 성서의 기사는 전한다. 훗날 자신의 동족(同族)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영도자로서 나서는 과정에서 이집트 공주이자 자신의 양모(養母)였던 바로의 딸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겠다. 모세의 입양의 경우, 이것은 ‘신적 섭리와 구속사적 계획의 파노라마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경우였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

둘째, 하인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시킨 기록으로는 아브라함이 하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기록과 세산이 종을 사위로 삼고 입양시킨 기록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창세기 15: 2-3에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야훼에게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실제로 상속자(양자)로 삼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의도만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구절로 미루어보아 당시 종을 양자로 맞이하는 습속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본처에서 자식이 없을 경우, 후처나 본처의 종을 후처로 택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고대 근동에서의 습속이었음을 감안하면, 자신의 종에서 상속자를 택하고자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아브라함의 주장에 대하여 성서는 야훼께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였다고 기록

19) 정중호, 위의 논문, 63-64쪽.

한다. 이같은 기록을 근거로 유대·기독교적 전통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혈통주의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기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한 핵심은 이미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창 12: 2),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아브라함을 견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본문은 야훼의 주권적인 구속 사역에 대한 본문으로 이해해 야지 언약과 혈통의 관계를 유추하는 본문으로 이해될 수 없다.²⁰⁾

셋째, 한편 역대상 2: 34-35에는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대를 낳았고”라고 적고 있다. 유다 지파의 세산은 종 야르하와 그의 딸을 결혼시킨 후 아들이 생기자 그 아들을 세산의 손자로 인정하고 세산의 대를 잇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상속과 관련하여 종을 사위로 취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를 상속자로 삼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속과 관련된 가문간의 입양의 사례가 혈통중심적 혹은 종족 중심적 범주를 뛰어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례를 이같은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IV. ‘입양’의 Context로서의 현대 (서구) 사회

이제 상기의 성서적 세계관으로부터 현대의 서구사회가 ‘입양’의 습속을 어떻게 자신의 유산의 일부로 받아들였는지를 유추해 보기로 하자.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정의할 때 이 말은 다시금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한다’는 언술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신앙과 실천의 특질을 분석하는 맥과이어(M. B. McGuire)는 “사회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는, 대부분 실재를 정의하는 그들의 신앙체계로 형성된다”²¹⁾고 말한다. 한 개인의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그가 소

20) Brueggemann, Walter, *Genesi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pp. 142~144.

21) McGuire, Meredith B., *Religion: The social context*, 김기대·최종렬 역, 『종교사회학』(민족사 1994), 327~328 쪽

유하는 신앙체계가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한다는 전제 아래, 한 개인의 신앙체계의 형태는 그 개인의 사회 상황을 인식하는 중요한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²²⁾ 이상의 가설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그 체계 안에서 자신의 행동양식을 결정한다'는 결론으로 사용될 수 있다.

때로는 한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행태의 신앙체계들로 인해 종종 사회 상황 속에 있는 문제들을 개인적 결함의 총합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을 향한 일지된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 대하여 막스 베버(Marx Weber)는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가설을 제시한다. 즉, 사회 현상 중에서 '구조적 결함이 라고 인식되는 제 상황은 (모든 개인들이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될 때에만 극복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베버는 "'특정 신앙체계들이 상이한 종류의 개인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내세적(來世的) 전망을 강조하는 종교 행태와 달리 개신교 사상의 여러 경향들은 이승의 구원의 '결과와 신이 부여한 세계 자원의 '경영(즉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신앙체계의 측면들은 사회변동을 향한 행위 가능성과 행위 지향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대변될 수 있는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의 제 경향은 전통적으로 종족, 혹은 집단을 중시했던 가치관과 대치되며 아울러 규범을 강조하는 종교적 가치관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일견(一見)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예단(豫斷)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종족, 혹은 집단이 여전히 중요하며 아울러 집단이 소유하는 종교적 가치관도 결코 쇠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허버그(W. Herberg)는 종교와 종족 의식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면서 '미국 사회의 경우, 자신들을 개신교, 카톨릭, 유대교와 같은 3 대 종교 중 하나에 소속시

22) 맥과이어는 "만약 한 종교가 신자들의 불행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신의 계획의 일부라고 가르친다면, 그들은 그 불행에 도전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신자들은 그 상황 즉 그 신앙체계가 인간은 변동에 무력하다는 사상으로 정의한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한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신앙의 영역 안에서) 신의 섭리라든지,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숙명주의'를 구체화한 신앙체계는 개별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사회 행동주의로 유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Mcquire, Meredith B., 위의 책 327~328 쪽 실제로 미국 사회의 경우 종종 다양한 혹은 종파의 신앙체계들 가운데 신성한 섭리에 집중함으로써 사회 행위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실례를 막스(Gary T. Marx)도 전하고 있다. "나는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투표도 안하죠. 단지 신의 계획에 의지할 뿐입니다."

키려고 하는 미국인의 경향 분석'을 전하고 있다. 허버그는 “미국 사회에서 종족적 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들의 종교적 정체감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²³⁾고 주장한다. 이 경우, 한 개인이 특정 종교 집단에 가입하여 신앙생활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집단의 신앙체계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체감은 사회적 지위와 자기 정체성 확보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버그에 따르면 “종족적인 자기 정체성은 미국생활로의 불안정한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반면에 미국에서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수용할 만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한정짓는 데도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버그는 그 종교를 실천하거나 그 교리를 믿지 않는다 해도 자신들을 3대 종교의 하나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허버그의 분석에서 ‘종족주의의 세 경향이 쉽게 동화(assimilation)의 과정을 거쳐 그 결속력이 약화되어간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종교적 정체성의 강화에 대한 경향성은 현대 미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회분석적 틀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릴리(Andrew Greeley)는 ‘미국적 종족의식이 단순히 구세계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미국문화로 전이하기 위한 역동적이고 독특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종족 집단은 이주자들이 뒤지지 않고 적절하게 동화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하며, 종족의식으로 인해 그들은 전통에 조화해 봄으로써 새로운 소속감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²⁴⁾ 종족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한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다 종족과 다 문화의 사회에 적응을 위한 전이(轉移)를 더욱 유연하게 해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들을 통하여 우리는 미국의 경우, 전반에 걸쳐 여전히 종족적, 종교적 정체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근간에 특별히 ‘가톨릭, 유대교, 개신교’의 제반 전통이 중요한 사회적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주제, ‘입양’ 문제에 관하여서도 상기의 ‘유대·기독교적 전통(Judeo·Christian)’ 전통과 그 전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성서와

23) Herberg, Will, *Protestant-Catholic-Jew: An Essay in American Religious Sociology*, Garden City, N.Y.: Doubleday, 1960. pp. 6-64.

24) Greeley, Andrew, *The American Catholic: A Social Portrait*, N.Y.: Basic Books, 1977, p. 82.

그 세계관, 가치관이 서구, 특히 북미에서 일정한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료된다.

한편, 艱(間) 문화 입양의 실제 행위에서 또 다른 하나의 무대가 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일찍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 북유럽에서는 개신교와 이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 북구인들의 삶과 그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토대를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일은 물론,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근대 국가를 이루는 정신적 배경으로서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²⁵⁾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유대·기독교 전통의 틀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의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면서

성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자녀는 비록 부모의 결합으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나지만 부부가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만드시는 조물주의 섭리 가운데 출현한다고 믿는다. 부모는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조성하신 아이를 낳고 또한 그 아이들을 잘 돌보는 책임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부모는 일종의 입양 부모라고 말할 수 있다.²⁶⁾ 자신의 가계를 통해 출생하는 한 독립된 인격체를 잘 양육시켜, 이제 때가 되면 더욱 넓은 공동체인 이 세상에 내어보내는, 그래서 또 그들이 자신들의 배우자를 만나 다른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한 일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고리로서 부모는 존재한다. 잘 짜여져 연결된 고리의 기능은 어느 한 부분이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전체적 조화는 깨어지고 그 깨어짐으로 인해 나머지 고리들도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상처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웬(Henry Nouwen)은 '(사회적 제상처를 치

25) 이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Christian Church*, 강근환·민경배·박대인·이영현 역 『세계기독교회사』(대한기독교서회, 1975), 407~409쪽을 참고할 것

26) 신원하, 「하나님의 자궁사랑: 입양신학 토대를 향한 서론」, 『기독교사상』 2004년 11월호(2004), 260쪽.

유할 수 있는) 우리의 해방자는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면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옛날 전설을 담은 탈무드 속에서 발견 하였노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음의 일화를 소개한다.²⁷⁾

랍비 여호수아 벤 레비는 랍비 시메론 벤 요하이의 동굴 입구에 서있는 예언자 엘리야를 찾아와서 물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엘리야는 대답했다. ‘가서 그분에게 물어보시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분은 상처투성이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처에 감은 붕대를 한꺼번에 전부를 풀었다가 또 다시 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되겠지, 그 때에는 지체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하시면서 자신의 상처에 감은 붕대를 하나씩 풀었다가는 다시 감고 계십니다’(탈무드 ‘The Tractate Sanhedrin’에서).

나우웬은 구세주 혹은 해방자는 가난한 사람 가운데 앉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상처에 붕대를 하나씩 감고 있다는 탈무드의 일화를 전하면서, (성서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방에 대한 최초의 표시를 명백하게 제시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를 필요로 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을 예기(豫期)하면서 자신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한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할 이들은 곧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즉 그 자기 자신의 상처를 돌보아야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입양(入養)’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은 오늘날 급속하게 변모되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가계의 계승’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입양의 습속은, 급격히 ‘사회적 돌봄의 실천’이라는 윤리적 명제와 더불어, ‘입양인과 피입양인 사이의 쌍방향 관계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 인식의 변화는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인들의 자체적 습속에서라기보다도 혈연을 넘어서는 입양에 적극 앞장섰

27) Nouwen, Henri J. M., *The Wounded Healer*, 이봉우 역, 『상처입은 치유자: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사목』(분도출판사, 1972), 93-94, 106-107 쪽

던 우리 사회 밖의 정신세계에서 유래한 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되어 나간 이들이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그들이 처한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문화를 이끄는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소식들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한국인들이 '잇고' 살았던, 그리고 '잇고 싶었던' 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당당히 한국과 세계를 소통하는 소통의 한 복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 해외 입양인들은 이제 보다 분명한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이제 우리 주변의 '입양'의 문제가 상기의 나우웬이 남기고 있는 일화와 가르침처럼, '은혜 받은 자의 은혜 갚음' 혹은 '상처받은 자의 치유자 됨'의 의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들 희망 속에서 서론에서 진술한 요셉등과 같은 '피입양자'들의 경험이, 상처를 넘어서는 치유와 화해, 그리고 용납의 새 지평으로 나아갈 것을 꿈꾸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철손·박창환·안병무, 『신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 문옥표·박병호·김광억·은기수·이충구, 『조선 양반의 생활세계, 의성김씨 천전과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 백산서당 2004.
- 문희석, 『구속과 창조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신원하, 「하나님의 자궁사랑: 입양신학 토대를 향한 서론」. 『기독교사상』, 2004년 11월호, 2004.
- 전동근, 『한국 입양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전익준, 『해외입양의 구성요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정연희, 『이야기 선교사: 양화진』. 서울: 흥성사 1992.
- 정중호, 「구약에 나타난 입양모티프에 관한 연구」. 『계명신학』 제10집, 1995.
- 주영하, 「출산의례의 변용과 근대적 변환: 1940~1990」. 『한국문화연구』 제7집, 2003.
- Bruggemann, Walter, Genesi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Greeley, Andrew, *The American Catholic: A Social Portrait*. N.Y.: Basic Books, 1977.

- Herberg, Will, *Protestant-Catholic-Jew: An Essay in American Religious Sociology*. Garden City, N.Y.: Doubleday, 1960.
- Marx, Gary T., "Religion: Opiate or inspiration of civil rights militancy among Negro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2, 1967.
- Meguire, Meredith B., *Religion: The Social Context*. 김기대·최종렬 역 『종교사회학』. 서울: 민족사, 1994.
- Nouwen, Henry J. M., *The Wounded healer*. 이봉우 역, 『상처입은 치유자』. 왜관 분도출판사 1972.
- Rowley, H. H., *The Prophecy and Religion in Ancient China and Israel*. 나채운 역, 『고대 중국과 이스라엘의 예언과 종교』. 서울: 기독교문사 1991.
- Sellin, E & G. Fohr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김이곤·문화석·민영직 역,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강근환·민경배·박대인·이영현 역, 『세계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 Weippert, M, *The Settlement of the Israelite Tribes in Palestine*. SBT: SCM, 1971.
- Wright, Christopher, *Living as the People of God: The Relevance of Old Testament Ethics*. 정옥배 역,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89.

● 투고일 : 2004. 2. 2

● 심사완료일 : 2004. 2. 28.

● 주제어(keyword) : 혈통중심주의(Lineal piety), 아들선호전통(Son-Centered Tradition), 자비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Biblical Teaching on Benevolence), 입양에 대한 유대-기독교적 전통(Judeo-Christian Tradition on Adoption)